

2주간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집중단속

광주경찰, 오는 29일부터 내달 12일 까지 2주간

시내·시의 버스·택시·화물차·렌터카 등

광주지방경찰청은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보행자 보호 중심의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되며 사업용 자동차는 시내·시의 버스와 택시, 화물차, 렌터카, 견인차 등이다.

최근 3년간 사업용 자동차에 의한 교통 사망사고는 감소추세지만, 보행자 중 대다수가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체계 안전도는 저조한 편이다.

경찰은 사업용 자동차가 교통문

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 단속뿐만 아니라 광주시와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체 홍보·교육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운수업체 방문 등을 통해 단속 취지와 기간을 예고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병행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집중단속은 29일부터 7월12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실시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과속·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등이 중점 단속 대



상이며,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와 시간대를 선정해 캠페인 단속도 활용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스쿨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야간·심야에도 단속 활동을 전

개하며, 일반 운전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이 읍주단속을 실시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지역의 선진 교통문화 확산을 이룰 수 있도록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사구간 바뀐 차로서 택시 정면충돌 역주행 사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서 빗길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역주행을 하다 택시와 정면 충돌, 승객과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씨(4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3분쯤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인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51)와 승객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주행하는 차로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사거리로 지나면서 주행방향이 바뀐 상태였다.

A씨는 비오는 야간에 차선이 바뀌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했다. 결국 A씨는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택시와 정면 충돌사고를 냈다.

경찰은 이날 새벽 비가 많이 내리면서 A씨가 차선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선대, 학내 소상공인 매장 임대료 50% 감면

조선대학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내 소상공인 매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18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기획위원회를 통해 대학 내 임대 매장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학내에 입점한 구두수선소, 위생용품자판기, 무인세탁기, 복사점, 매점, 식당, 카페, 사진관, 사물함 등이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만 받기로 했다.

학내 입점한 임대 매장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온라인 강의로 등교하는 학생 수가 줄면서 수입이 급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조선대 생활협동조합 내 사진관을 운영하는 안윤영씨는 "증명사진을 찍는 학생들이 없어서 생업에 지장이 많았다"며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학의 배려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는 소상공인들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여직원 기숙사 물카 의혹 내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기숙사에서 회사 간부가 여직원 숙소를 무단 침입해 '물카'를 설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기아차 광주공장 인사팀장 A씨가 여직원 방에 몰래 들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관련 보도가 나오자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에 기아차 측은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경찰은 이날 내사에 착수해 피해자 소환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회사를 그만 둔 A씨는 보도와 관련해 "100%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편의점 알바생 17명에게 450만원 가로챈 30대

사회경험 적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잠적한 30대 남성에게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30)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4월25일 광주 광산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 1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지난 9월까지 지역 편의점 17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45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

A씨는 사회경험 적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물색해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체크카드 형태 지역화폐로 현금인출을 시도한 뒤 택시비가 필요하다거나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회삿돈으로 선산 명당 조성' 박삼구 전 회장 무혐의 처분

임직원 등 5명 기소유에

선산 주변을 이른바 명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사용한 의심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박 전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또 금호그룹 고위 임원과 계열사 대표 등 5명은 기소유에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에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동기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선산을 명당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인자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소유에 받은 5명에 대해서는 회사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계열사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등 손해를 모두 회복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4년 말까지 회사 자금 15억원을 들여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박 전 회장 일가의 선산 맞은편 석산 2곳을 매입하고 가꾼 혐의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수사를 받아왔다.

당초 금호그룹 건물관리를 담당하던 한 계열사가 2013년 채석장으로 쓰이던 석산을 매입했다. 이 계열사는 골재 생산 목적으로 석산을 사들였지만, 관련 매출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은 그동안 선산 가꾸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윤장현 조카, '시장 아들' 사칭해 술집 업주에 수백만원 받아

세무조사 무마 명목...경찰, 구속영장 신청

자신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윤 전 시장의 조카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

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이날 진행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에서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여 업주에게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본 업주의 협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광주시장 공천

의 도움을 기대하고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또 이 재판과 관련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